

“질병 방역 양돈농가 스스로 해야죠”

-여주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최 근 대만의 구제역, 화란의 돼지콜레라 발생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자국내 양돈산업을 크게 위협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크므로, 국내도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3월6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에 관한 세부 설명회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게 생산자 단체의 시·군지부에 축종별 사업단을 두는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한 후 그해 5월27일 36개소의 1차 공동방역사업단을 선정하였으며, 이어 10월에 17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공동방역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중 돼지공동방역사업단이 41개소이며, 닭 11개소, 소 1개소 등 총 53개의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되어 방역사업을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들 사업단에 개소당 사업비의 70%인 4천2백35만원씩 모두 15억2천4백6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보조금은 예방약, 냉장고와 방역차량, 휴대용 냉장박스 연막분무기, 고압세척소독기, 고압멸균기, 병성감정기구세트, 철제자동주사기, 의료기구소독기, 소독기, 멸균기, 주사기,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지원되었다.

본회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1차로 흥성지부, 당진지부, 예산지부, 아산지부, 전주완주지부, 고

성지부, 거창지부, 합천지부, 울산지부가 선정되었으며, 이어 10월에 2차로 안성지부, 전주완주지부, 고성지부, 양산지부, 하동지회가 추가로 선정되어 본회의 지부중에서 14개 지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정되어 꾸준히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주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여주 가축공동방역사업단(단장 : 윤상익)은 지난해 10월 선정되어 여주지역 회원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단은 본회 여주지부가 주최가 되어 선정된 가축방역사업단이기 때문에 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지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급백신을 수령시 약품을 거래처에서 직접 여주지부 사무실로 가져오게 되면 여주군 축산계 직원이 사무실에 직접 와서 거래명세만 확인하는 형식으로 약품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군청과 면사무소 등 관급백신이 농가들에게 공급되는 단계가 너무 많아 실제로 농가가 약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그 약품을 사용할수 없게 변질되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주지부에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 약품을 약품업체에서 직접 지부

사무실로 공급하게끔 하였으며, 지부에서는 이를 수령하여 수령한 다음날 농가들에게 직접 배포해 주어 1주일 이내에 약품을 다 사용하게끔 하는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가들이 관급백신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여주 방역사업단의 경우 수의사 등이 포함된 지부 운영위원 10명이 방역요원으로 전원 활동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가를 직접 방문

하여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매월 모임을 갖고 방역 사항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경우 방역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농장 특성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회원농가는 지부 사무실에서 약품을 수령한 후 농장에서 행해지는 백신접종 등은 농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여주 방역사업단장인 윤상의 방역단장은 여주군청 관계직원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방역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실례로 여주군을 통해 약품 운반용 아이스 박스를 지원받아 각 회원농가들에게 모두 배포해 주어 약품을 수령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신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농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여주군내 양돈농가는 대략 160농가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방역사업단에 가입한 농가는 50농가로 이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전업



▲윤상의 여주가족공동방역사업단 단장(본회 여주지부장)이 가족공동방역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뒤로 여주양돈협회 사무실이 보인다.

농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윤상의 방역단장은 여주군내 모든 양돈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회원 농가를 상대로 설득하는 등 가족방역은 개인의 방역차원이 아닌 전체 농가들의 공통의 문제로 인식시켜 이들이 가족방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여주군과 이천시와의 접경지역 등은 이천방역단과 모임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방역사업의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여주, 이천, 안성, 용인 등 밀접해 있는 4개 지역의 가족공동방역사업단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점 등은 윤상의 방역단장의 방역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여주지부는 군으로부터 축산노·요수 처리업을 획득하여 5톤 트럭 2대를 이용, 농장에서 나오는 노·오수를 처리해 주고 있으며, 이 경우 방역사업단에 가입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어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가족방역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농가들이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회원들이 관급백신을 수령해 갈 때 이용하는 아이스 박스, 회원 전체가 각자 1대씩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부족한 방역사업단 운영비 확보는 지자체와 협력해야

현재 정부에서 오제스키, 콜레라, TGE, 일본뇌염 등의 약품을 공급해 주는데 있어서 현재 여주군의 돼지사육두수에 비해 실제로 공급되는 약품은 돼지사육두수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관급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여주 방역단은 봄, 가을 생석회를 방역단 차원에서 일괄 구입하여 회원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를 도포하게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TGE, PED 등의 질병발생률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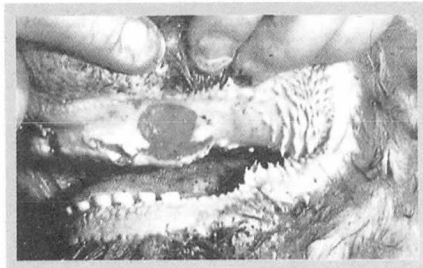
여주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윤상익 방역단장은 현재 군 지자체에서 공수의를 이용하는데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방역상 실제로 이용할 수 없으며, 매주 단위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공수의가 실제로 담당할수 없으므로 담당 공수의 수당을 방역단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도 방역단의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부족 문제는 방역단과 지자체가 잘 협조해서 군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방역은 나하나 뿐만 아니라 여주지역, 나아가 경기도, 더 나아가 국내 양돈산업의 존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개인만 생각해서 방역사업에 소홀히 하고 남의 일로만 여기는 축산농가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윤상익 여주가축공동방역사업단장은 “방역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취재 : 이병석> **養豚**

본지 캠페인



“대만 돼지 구제역 발생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